



지방의 선택! 희망 2007

대선 6개월 앞으로

盧 중립 의무 또 위반 결정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판단 유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8일)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식(10일),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13일)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2004년 3월 이후 세번째로, 이번 위법 결정은 두 번째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지 11일 만에 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원광대 강연과 6·10 항쟁 기념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거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거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 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

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참여정부평

가포럼’ 특강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경선후보를 비난하고 “한나라당 집권을 생각하면 꼭” 등의 발언으로 지난 7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후에도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원광대 강연과 6·10 항쟁 기념사를 통해 당과 유력 주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했다며 지난 12일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연기포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행보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참여정치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이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거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 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

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위반 결정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거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어 “지난 7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

“꼭 범여 대통합” 68%

광주일보 인터넷패널 여론조사

- 범여 단일 후보 내야
- 후보엔 손학규 1위
- 대선 이슈는 ‘경제’
- 지역 주의 영향 줄 것

혁신당 등 범여권 세정파가 여전히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며 사분오열된 데다 호남 정치권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지역 여론주도층의 답답한 심경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패널들은 또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로 57.3%가 ‘경제분야’를 꼽았고, 21.6%는 ‘후보 겸증’, 13.5%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라고 응답했다.

을 대선에서 지역 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

에는 79.5%가 ‘제한적이지만 영향을 미칠 것’, 18.9%는 ‘과거처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1.6%에 머물렀다.

범여권 대통합 후보로 적합한 인물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68.6%),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10.3%), 이해찬 전 총리(7.6%) 등을 꼽았다. 지난 9~11일 광주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전남 일반 유권자 조사(본보 6월 13일자)와 비교할 때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손학규 쿨립현상’이 뚜렷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적합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49.7%), 박근혜 전 대표(27.6%), 원희룡 의원(12.4%) 순이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인터넷 패널=광주일보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국 신문사상 최초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 광주·전남 학계,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497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수 준비 월등·주제 시의적절”

BIE 실사보고서…정부, 환경·해양문제 3천만달러 출연

세계박람회기구(BIE) 집행위원회는 18일 “여수 엑스포 주제가 시의적 절하며,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소중한 자산을 남길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BIE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한국시간 밤10시) 팔데 데 풍그라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 141차총회에 보고한 실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또 “박람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가치있는 유산을 남길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박람회 개최는 대통령, 총리, 정부, 경제계로 부터 강한

지지를 받는 등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특히 여수 시민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환경·해양문제를 연구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에 모두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여수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 노력에 착수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

서울 장충고 무등기 우승 ▶22면



18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 서울 장충고와 광주 동성고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장충고 선수들이 유영준 감독을 힘내라치며 환호하고 있다. 지난 11일 개막돼 8일동안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서울을 비롯 각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전국 24개 야구 명문고교가 참가해 명승부를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광주인은 제 11회 소비자기 품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배웠는지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KUKJE SENSTICK
인들에 비타민을 주자
어린다운 입술
SENSTICK

KUKJE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